

'AI주범' 철새도래지 전남 26곳 최다… 이동경로내 농가 지켜라



20일 오후 해남군 황산면 고천암 수로 인근 도로에서 전남 축산위생사업소 직원들이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원거리용 방역기로 철새도래지에 대한 방역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道, 84개 방제단 긴급투입 예찰·소독 강화… 가창오리떼 GPS 부착 경로 파악

고창 등지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의 발병원인이 전북 동림저수지의 가창오리떼로 밝혀지면서 전남지역에도 비상이 걸렸다. 국내 대표 가창오리 도래지인 금호호와 영암호 등 개체수가 많은 철새도래지지만 10곳에 달하고, 광양 갈사만 등 전남 지역 철새도래지가 모두 26곳에 달하기 때문이다. (표 참고)

AI 확산을 막기 위해 사육농가의 차량과 관련자 통행을 막을 순 있지만 철새의 이동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철새의 이동경로에 따라 방역망을 구축하는 새로운 대책도 불가피해졌다.

철새는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아무 곳이나 분비물을 떨어뜨려 농장에 있는 닭과 오리를 전염시키지만 이를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어 방역에도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AI의 감염원이 가창오리로 밝혀지면서 이동 경로도 중요해졌다. 가창오리는 러시아 레나강에서 시베리아 동부, 아무르와 사할린 북부, 카차카반도 등에 분포하며 전 세계 가창오리의 90% 이상이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난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가창오리 20여만 마리가 영암호에 들어왔으며 12월부터는 동림저수지와 금강호에 머무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동

림저수지의 가창오리들이 다음 달 말까지 동림저수지와 금강호에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전남지역도 결코 안전지대라고 말할 수 없다. 지난해 12월 영암호에서 발견된 가창오리의 것으로 보면 저병원성 AI가 검출됐고, 지난 2011년 해남과 보성 등지에서 겨울을 낸 철새에게서 AI가 검출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또 과거 발생한 AI 중 가장 큰 피해를 낸 2008년 AI는 복절에 발생했는데, 철새가 복상하면서 AI 바이러스를 퍼뜨린 것으로 밝혀져 방역 당국이 더욱 고심하고 있다. 죄악의 경우 지난 2008년처럼 AI 피해 기간이 길어지고, 광범위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AI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포위망형' 방역 대신, 철새 비행경로의 모든 지역을 감염 위험지역으로 설정하고 방역 대책이 필요해졌다.

정부는 전국 철새도래지 37곳과 주변 농가를 대상으로 예찰과 방역활동을 강화하도록 전국 지자체와 농협 공동방제단, 가축위생방역본부에 지시했다. 또 애초 1~2월 중 1만건 가량 시행할 예정이던 아생조류 분변 수거 검사를 1만7000건 가량으로 늘리고, 가창오리떼의 이동 경로 파악

■ 전남 주요 철새 도래지 현황

번호	주요도래지	종수(개체수)	주요 서식종
1	장성호	16(299)	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 등
2	금호호	15(84)	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 등
3	무안군 현경면, 운남면	29(6,293)	혹부리오리, 흰물떼새 등
4	무안군 해제면, 신안군 지도읍	13(1,893)	흰뺨검둥오리, 왜기리 등
5	무안군 저수지	38(2,331)	청둥오리, 민물오리 등
6	무안·목포해안	25(5,724)	청둥오리, 혹부리오리 등
7	임해도	34(3,025)	혹부리오리, 흰머리오리 등
8	영진호	39(7,30)	청둥오리, 물닭 등
9	나주 우수체	20(3,506)	큰기리기, 가창오리 등
10	영암호	61(433,799)	가창오리, 큰기리기 등
11	금호호	55(14,886)	가창오리, 큰기리기 등
12	고천암호	29(26,362)	가창오리, 쇠기리기 등
13	해남 향초저수지	26(1,145)	홍머리오리, 쇠오리 등
14	진도 군내간척지	22(2,976)	큰기리기, 흰죽지 등
15	진도 둔전저수지	14(511)	청둥오리, 흰머리오리 등
16	강진만	35(3,535)	큰기리기 등
17	강진 사내간척지	34(75,277)	청둥오리, 흰머리오리 등
18	강진 민덕간척지	20(495)	흰죽지, 기발톱랫새 등
19	합평 대동댐	26(2,133)	비오리, 흰뺨검둥오리 등
20	보성만·득량만	47(4,147)	고방오리, 붉은부리갈매기 등
21	고흥 점암저수지	13(790)	물닭, 흰죽지 등
22	고호호	24(1,003)	검은머리흰죽지, 흰죽지 등
23	고흥 포두면 간척지, 해천만	25(1,043)	흰죽지, 흰뺨검둥오리 등
24	고흥 여자만	49(7,417)	청둥오리, 혹부리오리 등
25	순천만	77(9,301)	청둥오리, 고방오리 등
26	광양 갈사만	41(2,632)	민물기마우자, 붉은부리갈매기 등

※ 국립생물자원관 철새이동경로 및 도래 실태연구자료 (2011년 기준)

을 위한 GPS를 부착한다.

전남도는 방제단 84개 반을 긴급

투입해 주요 철새 도래지인 순천만,

주암댐, 고천암 등지를 1일 2회 예찰 및 소독하고 있다.

/오크빌기자 kroh@kwangju.co.kr

AI 과거 4차례 발병… 재산피해 6천억 원

전남은 비롯해 그동안 국내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AI)가 총 4차례 발병해 6000억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첫 번째 AI는 지난 2003년 12월 10일부터 2004년 3월 20일까지 102일간 발생했다. 이 지역에서는 나주에서 발생하는 등 전국 10개 시·군에서 19건

104일간 발생했다. 닭·오리 등 가금류 280만 마리를 살처분했으며 582억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이때도 애생조류가 고병원성 H5N1 바이러스를 옮긴 것으로 결론났다. 전남지역은 두 번째 AI 피해는 입지 않았다.

세 번째 AI는 2008년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42일간 발생했다. 발병

기간은 가장 짧았으나 영암 등 전국 11개 시군에서 가금류 1020만 마리를 살처분해 822억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과거 4차례 AI 발병으로 발생한 재

산피해는 총 6005억 원에 이른다.

/오크빌기자 kroh@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 131226-총-52297호

老안시려 노안교정

밝은광주안과 의
원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세계백화점